

지역의 신문을 실지 않는 신문사들

전라북도에서 언론사로 등록된 곳이 몇 가지나 될까? 종합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사 등을 포함하면 180개 이상이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꾸어 180개 이상 되는 언론사 중 기준을 지키며 운영되는 신문사는 몇 곳이란 될까? 진안신문 창간 22주년을 맞아 10월 14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화 사무처장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나는 시험기간이어서 잠시 청소년 수련관을 들렸는데 마침 계시던 류영우 기자의 권유로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강의에서는 ‘풀뿌리지역신문이 있어야 하는 이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는 언론사들’, 그리고 ‘이런 환경속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전라북도에 존재하는 지방일간지는 15개에서 18개에 이른다. 그렇게 많은 지방일간지중에 만약 ‘진안’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보도된 횟수는 얼마나 될까? 2019년 ‘진안’이 들어간 기사 횟수는 A신문사가 790건, B신문사는 526건, C신문사는 881건이었다. 2020년에는 A신문사가 505건, B신문사가 1천260건, C신문사가 844건을 보도했다. 한 신문사가 약 500건의 기사가 보도되는데 1년(55주) 동안 보도되는 기사량은 약 2만7천500건에 달한다. 문제는 ‘진안’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기만해도 카운트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신문사의 경우 2020년 505건인만큼 1년 전체 기사량과 비교할 때 1.8%에 불과하다”며 지역일간지에 지역 소식

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중앙일간지는 뭐가 다를까? 한계로 신문의 하루 평균 발행면은 32면으로 이 중 전복면은 단 1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호남면으로 바뀌어 안 나올 때도 있다 라며 또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사설 중 비수도권을 다룬 비율은 단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방송 또한 마찬가지로 2021년 1분기 전라북도 방송 3사 시군의제 보도 실태 보고서를 살펴보면 3개월동안 장수군에 대한 리포트 기사는 단 1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손주화 사무처장은 “방송과 지역일간지는 결국 지역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며 “제대로 된 주민 목소리를 담고, 지역 의제를 담은 언론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중앙언론사에서 한번 차별받고, 지역 언론사에서 한번 차별받고, 결국에는 농촌지역은 이중으로 소외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에 풀뿌리지역신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지역의 큰 단위 얘기만 언론사에 보도될 뿐 지역의 작은 단위 얘기는 언론사에서 들어주지 않으며 풀뿌리 지역언론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손주화 사무처장은 지역종합일간지와 지역방송사는 의제설정에서 편향성이 있다라며 이는 곧 전라북도의 정책방향과 같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풀뿌리지역신문의 밑바탕에는 ‘3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뉴스의 본질은 지역 밀착에 있으며 두



손주화 사무처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번째는 언론사의 수입의 50% 이상은 구독료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조금 의아했는데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구독료가 언론사의 수입의 50%가 되어야 지자체에서 주는 홍보비에서 벗어나 주민 입장에서 보도할 수 있다”라며 마지막으로 “풀뿌리지역신문은 권력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삶속으로 들어가 보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과거에는 신문에 나왔다는 말은 곧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신문에 나온 팩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

람들의 의식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외면한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정보를 얻고있는 사람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손주화 사무처장은 “우리는 이제 뉴스를 믿지 못하게 됐다”라며 “언론교육을 통해 ‘비판적으로 뉴스 읽기’ 연습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의가 어려워 많은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신문이라고 지역의 이야기를 실지만은 않다는 점, 그리고 왜 풀뿌리지역신문이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된 강의였다.

빈현옥(진안제일고 1)



다 같이 세계를 알아보는 지리 골든벨

2021년 6월 11일 금요일에 웅비관(마령 고등학교 강당)에서 지리 골든벨을 하였다. 이 행사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우리 고장 알기라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두는지 알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한다.

지리 골든벨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나라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짧은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였다. 아르헨티나, 스페인, 인도네

시아, 캐나다, 호주,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이렇게 총 7개 나라의 국기가 있었고 사회 선생님이 진행을 주도하였다. 국기들을 이젤 위 우드락에 붙여서 구역을 나누고 사회 선생님이 해당 나라에 관한 키워드를 전 교생들에게 나눠줬다. 학생들은 키워드를 확인한 후에 각자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7개의 나라 중 키워드에 맞는 나라 앞으로 모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찾은 나라에 관한 내용을

우드락에 담아 그 나라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발표를 마치고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팀(아랍에미리트)에게는 와규 버거 세트를 나눠주었다. 정리를 마치고 화이트보드와 보드마카, 칠판지우개를 자리에 두고 본격적으로 지리 골든벨을 시작했다.

지리 골든벨에 나온 문제로는 진안에 관한 것과 세계에 관한 것들이 나왔고 문제를 풀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 학생들은 대거 탈락하였다. 탈락된 사람들을 위해 여러 번에 패자 부활전을 진행하였고 대략 40번 문제

이후부터는 패자부활전을 멈추고 남은 학생들은 문제를 풀었다.

10명이 남았을 때 찬스 카드를 랜덤으로 뽑았고 찬스 카드에는 ‘친구야, 같이 가자!’, ‘선생님 도와주세요!’, ‘패스!’, ‘스마트폰 이용권!’, ‘미워도 다시 한번! (패자 부활전)’, ‘친구야, 고마워’, ‘짱’이 있었다. 학생들은 찬스 카드를 이용해서 문제를 맞히고 여러 번에 시도 끝에 2명이 남았다. 어느덧 PPT로 준비해둔 50개의 문제가 바닥이 났고 사회 선생님께서 따로 문제를 적어 놓은 노트를 보면서 문제를 내셨다. 남은 최후의 2인이 치열하게 문제를 맞히려고 하였지만 어렵게도 공동 2위가 되었다.

지리 골든벨을 마치고 웅비관(강당)에서 몇몇 학생들이 사회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하였다. 1학년 박가인 학생과 2학년 장민정 학생이 공동 2위를 하였고, 3학년 김지호 학생, 나혜란 학생, 1학년 신호정 학생, 이슬 학생이 공동 3위를 하였다.

공동 2등에게는 롯데리아 와규 버거 세트 교환권을 2개씩 주었고 공동 3등에게는 와규 버거 세트 교환권을 1개씩 주었다. 그리고 참가상으로 전교생에게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나눠주었다.

박선진(마령고 1)